<2022년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 일시: 2022. 11. 23.(화), 14:00~15:00
□ 장소: 온-나라 영상회의

□ 보고안건
- 제1보고안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2보고안건: 연구원 경영혁신 및 중기발전계획(안)

□ 심의안건
- 제1심의안건: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규정개정(안)
- 제2심의안건: 「보수규정」 일부규정개정(안)
- 제3심의안건: 2023회계년도 사업계획(안)
- 제4심의안건: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타안건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합리적 산정기준(안)

□ 참석자(24명)
- 이사장(1명): 김일재
- 이사(23명)
  · 임의직(5명): 김재훈, 김태영, 손희준, 이재원, 권명중
  · 당연직(18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15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충북·충남 불참)

(행정예산과장) 이사회 개최 알림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장) 개최 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참석 이사 및 참여 연구진 소개
(이사장) 인사 말씀
참여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제1보고안건 설명
(이사장) 궁금한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제1심의안건, 제2심의안건 설명

(이사장) 궁금한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3심의안건, 제4심의안건 설명

(이사장) 궁금한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기타안건 설명

(이사장) 궁금한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태영 이사) 기준 정하는 거는 연구원이 정말 잘하는 역량인데 이것을 해마다 정하는 것인이 3년 마다 정하는 것인지, 지방소비세 제도(A/B/C 등급)와도 연계하여 검토를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궁금함

(기획조정실장) 우선 이사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임 이사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최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릴 예정임

(경상북도) 오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경영지원실장) 금일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최종 결정할 것임

(이재원 이사) 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를 보동 사용하는 자립도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는게 어떤지?

(이사장) 차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 차등을 둘 경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자립도/자주도 어떤 것인 보다 합리적인지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김태영 이사) 차등할 것인가 / 말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이사장) 지난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초기 보고하는 것이고 큰 흐름을 보고 드림

(서울특별시) 시의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시 1회 부결이 있었고 재심의를 통해 의결되었음, 지방행정/서울연구원 관계에 대해 지적이 있었음, 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는 있으나 서울의 정책 개발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임. 내년 출연금 심의시 금액이 변동될 경우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됨

(인천광역시)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의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 서울/부산/인천/경기가 증액이 될 텐데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을거 같고 지방균형 관련해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들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과 연결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을거 같음

(이사장) 다른 시도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강원도) 증액을 요청할 경우 의회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경상남도) 현재 큰 의견은 없고 추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겠음

(전라북도) 현 자리에서 당장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는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의회의 설득이 필요할 듯 함

(지방재정정책관)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시도별 연구원 없는 곳이 없음 내년부터 인구 50만에 따른 지자체별 연구원 설립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행정연구원 존립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음. 자기 지역 차원에서 하는 것과 전국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시도연구원이 있는데 왜 출연금이 필요하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 활동하는 주체들과의 교감/공감대 형성하는 활동을 요청함

(이사장) 본 기타안건은 향후 어러차례 의견 수렴들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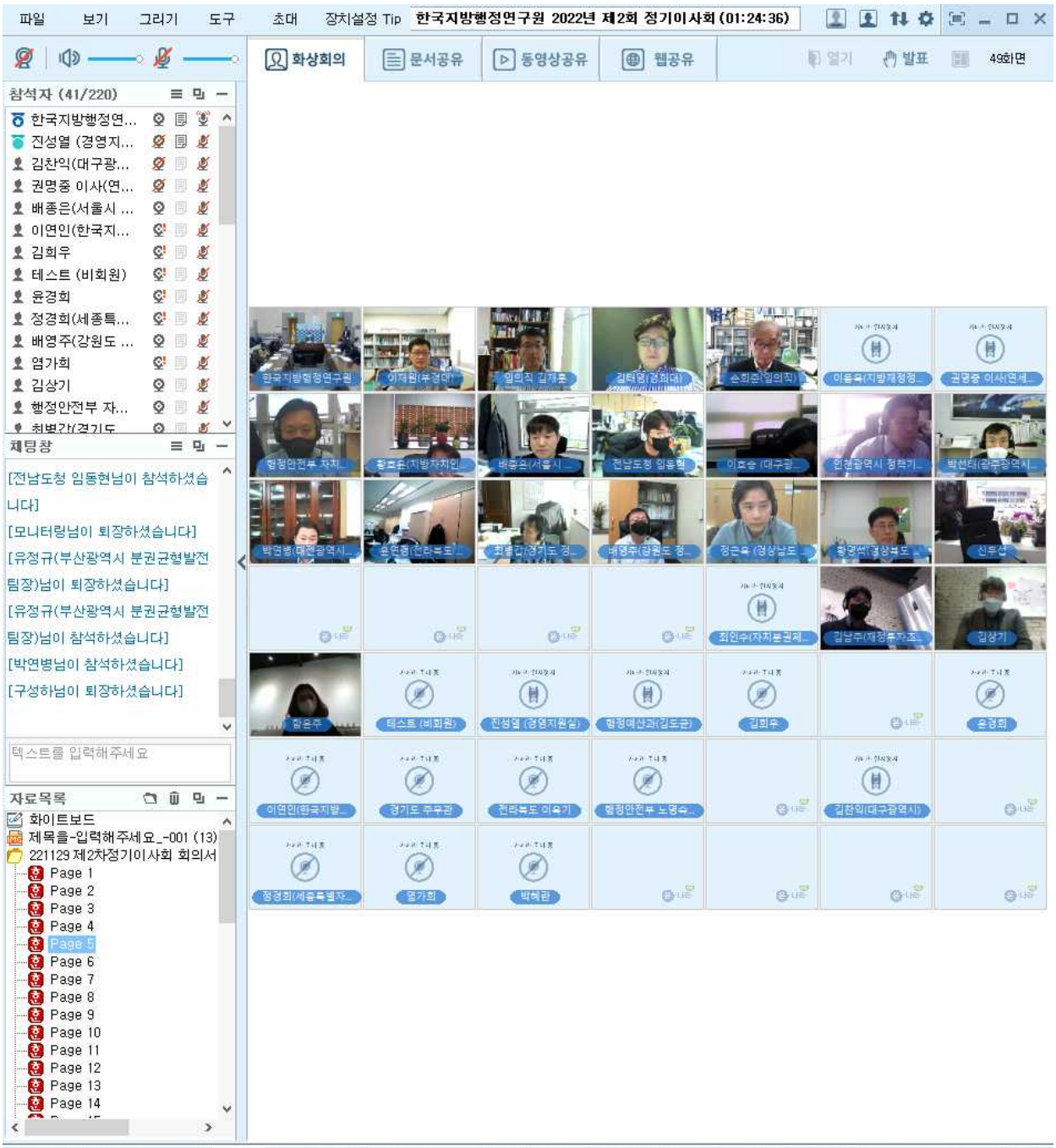
(기획조정실장) 제2보고안건 설명/보고

(김태영 이사) 학생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가장 신뢰를 하고 있음, 학생들이 지자체 연구원은 지자체를 위하고 연구원은 객관적이라고 생각들을 함 지방행정연구원이 더 발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함

(자치분권정책관-자치분권제도과장) 출연금을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연구원은 연구의 품질로 니즈를 충족 시켜주면 출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품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것을 무너트리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노력 해주기 바람

(이재원 이사) 지방자치단체-연구원 소통/협력 실천과제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사장) 이번 이사회 심의안건이 모두 논의되었음

(이사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중기발전계획은 좋은 말씀 반영하여 보완해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행안부/학회/지자체/시도연구원 다양하게 소통해나가면서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가 끝났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이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나라 영상회의 개최 사진